

'광주형 일자리' 또 위기

한국노총 광주 "노사상생정신 사라져...광주형 일자리 아냐" 불참 선언 광주시 "노동계 참여 절실...노정협의회 등 기존소통시스템 정비 할 것"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19일 오전 광주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 협력을 위해 광주형일자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착공을 앞두고 지역 노동계가 노사상생정신이 사라졌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 노동계의 참여가 절실하며 '소통 확대' 약속과 함께 노동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19일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 지역 노동계는 26일 예정된 현대차와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완성차공장 기공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노사민정 대화합을 전제로 출범한 광주형 일자리가 지역 청년실업 해소에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동참해왔다.

하지만 지난 1년여의 사업추진 경과를 평가한 결과 노사상생정신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 완성차공장 건립과정의 '시민자문위원회' 참여와 노동자 평균 임금 2배 이내의 임원진급액 책정, 노동이사제 도입, 현대차 출신 모 이사 경질 등을 요구했으나 GGM 1, 2대 주주인 광주시와 현대차는 묵묵부답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노정협의회는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고 노동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형 일자리'가 아닌 만큼 더 이상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의 핵심 축인 '노동계'가 기공식 불참을 선언하자 광주시는 노동계와 소통, 협력관

계를 강화하겠다고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다.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부시장은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지난 9월 설립돼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 노동계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협의기구를 운영해왔지만 이 기구들이 실질적인 소통 채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반성했다.

이어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광주형 일자리와 지역 내 노동현안을 논의해 노정협의회가 실질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착실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정협의회가 노동계의 소통 채널로 정상화되고 실질적인 협의 기구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사무국을 설치, 운영해 노정협의회에 대한 실무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노동계가 제안한 시민자문위원회를 노동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사업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봉우 기자

광주시, 내년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광주시는 2020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차액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가 정부 지원 보육료 이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다.

시는 그동안 취약계층(법정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과 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 아동에 대해서만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왔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지원받았다.

시는 영유아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8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20년부터는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만5000여 명의 부모가 양육부담을 줄이게 됐다.

광주 생활쓰레기 1일 60톤 감량...자치구별 킷터 도입

감량...자치구별 킷터 도입

광주 5개 자치구가 생활폐기물 하루 60톤 줄이기에 나선다.

19일 광주환경공단에 따르면 5개 자치구가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2020년 1월1일부터 '생활폐기물 킷터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생활폐기물 킷터제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기동중단 장기화로 광주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전량을 광역위생매립장에서 처리하면서 매립장 수명단축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며 도입됐다.

공단과 5개 구청은 생활폐기물(종량제 및 대형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 감축 목표량을 하루 평균 60톤으로 합의했다.

구별 일평균 감축목표량은 △동구 5.95톤 △서구 13.14톤 △남구 7.5톤 △북구 17.58톤 △광산구 15.83톤 등이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일평균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동구 59.48톤 △서구 131.20톤 △남구 74.91톤 △북구 175.59톤 △광산구 158.12톤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생활폐기물 감축량을 2주 단위로 정산해 구청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신봉우 기자

동구, 3년 연속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선정

광주 동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서 3년 연속 선정돼 청년일자리 창출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은 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행정안전부가 2018년~2021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동구는 올해 ▲문화거점시설 청년활동가 양성 ▲전통시장·상점가 청년상인 창업지원 ▲마을일터! 청년인턴 지원 등 3개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인 '빈 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 등 총 4개 공모사업이 선정돼 국·시비 포함 총 4억9천6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서구,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 선정 현판제막 행사

광주 서구가 금연치료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은 지난해 금연치료 참여기관 중 참여자 등록, 프로그램 이수 건수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서구는 금연프로그램 참여인원 및 이수율 등 참여실적이 우수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 11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받았다.

남구, 청년 거점공간 청년외락 운영 협업단체 모집

광주 남구는 청년들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백운광장 인근에 위치한 '청년외락' 거점 공간을 운영할 협업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남구는 19일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청년들의 자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청년 공간 플랫폼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외락 운영 협업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자격은 관내에서 활동 중인 청년단체 중 청년 이수를 주요 주제로 공익적인 활동을 전개하거나 상주인원 투입을 통해 청년외락의 운영 지원 및 네트워크 활동 보조가 가능한 단체, 청년문화 조성과 취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단체이다.

북구, 저탄소 녹색아파트 평가서 대상

19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광주시가 실시한 '2019년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 평가결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분야에서 관내 11개 단지 중 우수아파트로 선정됐다.

올해로 10년째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을 통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분야에 12개 단지가 참여해 대상, 최우수상(2), 우수상(3), 장려상(5) 등 11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며 총 8천 400만원의 인센티브와 함께 우수아파트 현판을 받게 됐다.

광산구,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19일 광주 광산구가 장덕도서관에서 '2019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26개 작은도서관 관계자와 주민 50여명이 함께한 이번 성과보고회는, 올 한 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방향을 모색하는 행사.

광산구는 올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함께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책 배달 서비스' 등을 추진했다.

보고회에서 참가자들은 마을 곳곳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독서문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임형택 기자

전남개발공사,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전남개발공사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전남개발공사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 표준이다.

기업이 환경경영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 뒤 이의 달성을 위

해 조직,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이뤄 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번 인증을 통해 표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환경경영체제를 공고히 해 친환경적 개발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봉우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화순군 공고 제2019-1700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공고

「건축법」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화순읍 일원의 일반상업지역에 대하여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합니다.

2019. 12. 19.

화순군수

1.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가. 대상지역: 화순읍 화순읍 일반상업지역
나. 지정내용: 관계도서(운영지침 참조)
2. 관계도서: 생략(화순군 도시과 비치도서와 같음)
가. 화순군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운영지침
3. 공고기간: 2019. 12. 19. ~ 2020. 01. 02. (14일간)
4. 공람장소: 운영지침 및 지형도면은 우리 군 도시과에 비치 및 화순군 홈페이지(<https://www.hwasun.go.kr/contents.do?S=S01&M=020104000000>)에 게재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도시과 공동주택팀 (☎061-379-38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약속해주세요